



‘환경’ 없는 불사 없다

환경(環境)과 생명(生命)이 이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지만, 과연 불교는 이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어느 종교보다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이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세속의 물질주의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이 많다. 그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불사문제(佛事問題)다. 청정불사(淸淨佛事)이고, 환경불사(環境佛事)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 환경적인 불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은 종교유산과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포함하는 복합유산(複合遺産)을 간직한 사찰(寺刹)이라는 물리적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찰 불사(佛事)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과 전체적인 조화(調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계획적인 건물의 배치와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롭게 창건되는 사찰이라면 모로되, 기존 사찰의 경우 창건(創建) 당시의 안목으로 돌아가 살필 줄 아는 지혜와 자연과 전체적인 조화(調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불사들은 ‘조화(調和)보다는 규모(規模)’를 중요시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통성(傳統性)도 해체되고, 주위의 환경도 훼손하게 되는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의 친환경적 불사(親環境的 佛事)를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친환경적 불사(親環境的 佛事)를 위해서는 우선 사찰은 종교적 성지(宗教的 聖地)이고,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을 간직한 이 시대의 종합유산(綜合遺産)으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삼세(三世)의 유산자원이란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삼세(三世)의 관점에서 사찰을 바라보아야 한다. 창건 주와 역대조사가 유지해 온 안목과 지혜를 유지하고, 현재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지는 불사와 총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찰기본계획(master plan)이 수립



자연과의 조화 수행의 첫조건

사찰은 ‘복합유산’ 먼저 인식

통성(傳統性)과 자연성(自然性)을 고려한 지속적인 불사(佛事)와 관리(管理)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진정한 의미의 대항불사는 이 시대의 문화유산을 창출시키는 불사다. 과거의 전통을 바탕으로 특성을 살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만드는 불사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불사는 불교적 전통을 이어가는 불사이어야 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불사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불사의 주체인 스님들이 명심했으면 한다.

■ 이병인(말안대 환경문화과 교수)

‘사면개헌’ 3번째 부결

조계종 163회 총회, 총림법개정안 등 ‘통과’

멸원자 사면 종헌개정안이 세 번째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자하는 4월 1일 열린 제163회 임시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 결과 78명 중 찬성 50명, 반대 28명으로 멸원자 사면 종헌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총회에서는 또 무기명비밀투표 결과 72명 중 찬성 42명, 반대 27명으로 새 교육원장에 정화 스님(준천 청평사 주지)을 선출했다.

조심호계위원으로 도견 스님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진기 스님을 재선출 했으며, 종헌·종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홍 스님(조계사 주지)을 선출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후보로 일연·해립 스님(입적한 정대 스님 후임)과 이재창·원운선 씨(인기만료된 서문각 이사 후임)를 추천 동의했다.

중앙총회 직능대표선출위원으로 통광·수경·정념·종상·명철·지선 스님을 선출했으며, 전위원장 정화 스님이 교육원장으로 선출돼 공석이 된 법어사·선암사실태과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향적 스님을, 위원으로 진구 스님을 추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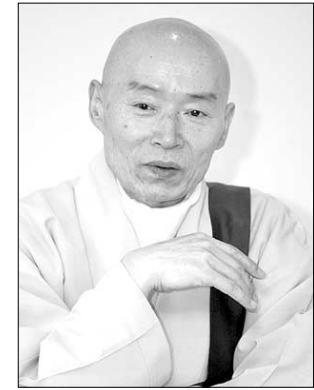
한편 방장은 15안에서 20안 거 이상 성만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선임장은 방장이 위촉하며 선원 대중의 화합과 질서를 위한 총림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다만 관리위원회가 이사과 감사 등 임원 후보를 선정할 때는 당해 교육기관의 법인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7조 4항을 삭제하는 등의 총림학교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회는 2일 오후 성원미담로 자 동 휴회했다. 남동우 기자

“출가연령 제한 재고 필요”

인터뷰 조계종 새 교육원장 청화스님



중히 생각해야 되지만, 변화된 욕구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전통과 변화가 부딪쳐야 발전이 있을 것이다.

▲출가연령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견이지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인력수급 문제가 우려됩니다. 연령 하향 조정 즉 의견을 들어보면

수행자로서 위상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일리는 있지만 문턱을 낮추고 대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여과 장치로 징계를 더욱 강화한다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평소 생각하는 수행자 상은? -법구경에 ‘자신을 바르게 한 뒤에야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다. 교육의 최고 가치는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해야 깨달음도 가능할 것이다.

청화(淸和) 스님은 1944년 출생, 1964년 화계사에서 해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2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교무국장, 제11·12·13대 중앙총회의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춘천 청평사 주지로서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은해사 연수원 건립 협조”

법장 스님 3개 본사 잇단 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 연수원 건립에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3월 26일 은해사에서 열린 ‘교구본·법사 주지 및 신행 단체장 간담회’에서 은해사 포교국장 해 스님이 “은해사 교양대학 수강 신청자가 500여명에 이르지만 200여명 밖에 수용할 수 없다. 연수원 건립을 위한 지원을 바라며 국비 보조금 신청에 총무원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자 법

장 스님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의성 고운사(주지 해승) 간담회에서는 본말사와 신도회가 모은 조계종 총본산성역화 사업을 위한 불사금 1700만원이 전달됐다.

한편 28일 예산 수덕사(주지 법정)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장 스님은 “자비의보림금” 나눔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천·의성·배재선 기자

이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東大 이사회서 결의

동국학원 이사회(이사장 현해)는 3월 31일 타워호텔에서 제198회 이사회를 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인 명칭인 ‘학교법인 동국학원’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로 변경기로 결의했다.

또 동국학원 산하의 모든 종립 학교에 대해서는 ‘동국대학교 사

범대학부속 00학교’로 명칭을 사용기로 하고 학교 측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41명의 교원 승진 임용에 관한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산불교병원 장례식장과 관련한 수익사업체 신설을 위한 정관계정 건은 다음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불교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 공모 실시

조계종이 불교계 시민·사회 운동 활성화를 위한 ‘2004 불교 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공모 대상 프로그램은 통일, 환경, 인권, 여성, 사회개혁, 노동 분야의 실천 및 연구 조사 사업으로, 한 단체 당 1개 사업이 선정된다.

4월 7일부터 23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02-2011-1820) 및 이메일(yeokjung@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안내서 및 신청서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남동우 기자

원용종 주요기관장 인사 단행

중앙총회도 ‘새 얼굴로’

원용종(총무원장 법륜)은 3월 26일 주요 기관장 및 총무원 부장 인사를 단행했다.

원용종은 포교원장에 벽봉(진주 영광사), 포교원 부원장 명허(예천 연화사), 문화원장 혜관(서울 관음사), 교육원장 화담(광명해암사), 규정원장 정관(이천 고불정사), 규정원 부원장 석경(양산봉림사) 스님을 각각 새로 임명했다. 또 총무부장에 진해, 사회부장 채법, 사업부장 채도, 재무부장 대월, 전국비구니회 회장 대월 스님을 각각 선임했다. 인천교구 총무원장에는 법원, 경남교구 총무원장 은해, 부산교구 총무원장 대천, 전남교구 총무원장 진운, 충북교구 총무원장 채두, 경북교구 총무

원장 불선 스님이 임명됐다.

이와 함께 원용종은 이날 총무원 회의실에서 중앙총회를 열고 새 의장체체의 스님(홍성 약수사)을 선출했다. 의원으로는 천호, 지관, 선덕, 대일, 보선, 체명, 체해, 정관, 성묵, 체선, 체각, 풍원, 순은, 선수 스님이 각각 뽑혔다.

한편 원용종은 같은날 서울 구로동 원용사에서 창종 2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박봉영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성명서

귀의 삼보하옵고 불교TV가 올해로서 창사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부처님의 법음이 영상 매체를 통해 눈·귀에 비추기 시작한 것도 내년이면 10년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날의 외환위기와 정부의 방송정책 혼선으로 불교TV가 겪은 각 가지의 고난과 시련을 잊을 수 없습니다. 100억원이 넘는 負債에다 사육과 방송시설마저 압류당해 방송중단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암담했던 시기,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신 분은 바로 시청자들과 불자 여러분 그리고 제방의 스님들 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찌 그 공덕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두 손 모아 다시 한 번 절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방송의 질을 높이고 방송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해 여러분 앞에 한걸음 다가가는 방송,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방송, 나아가 정보시대에 불교 언론을 선도하는 앞서가는 방송이 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계층에서 불교TV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소문을 퍼뜨리고 또 일부 교계신문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왜곡 보도해 불교TV와 불교TV를 아끼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교TV가 봉천동에 사육을 짓는다면서 불자들을 속여 모연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해명이 있었습니나다만 현재의 봉천동 불교TV 사육은 불교TV 사육으로 건설되었고 그 건물 용도도 어디까지나 방송전용 건물입니다. 건축주가 방송전용 건물을 지어 불교TV에 제공하고 불교TV는 형편이 되는대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최근 건축주가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건물전체를 일시불로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불교TV의 입장으로는 9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마련할 수 없어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상사의 3,000불 모연금과 각종 후원금에 대한 의혹입니다. 이도 10원 한 장 헛되어 쓰지 않았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자 일부 교계신문에도 모연 동참자 전원의 명단과 함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교TV에 대한 지속적인 음해는 천신만고 끝에 정상을 되찾고 있는 불교TV에 대한 실시이거나 교계의 분열을 획책하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에 불교TV 임직원 일동은 불법을 방자해서 불교TV를 음해하거나 불교계의 분열을 획책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불사에 모두가 매진할 수 있도록 불자들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불기 2548년 3월 29일

불교TV 임직원 일동 합장